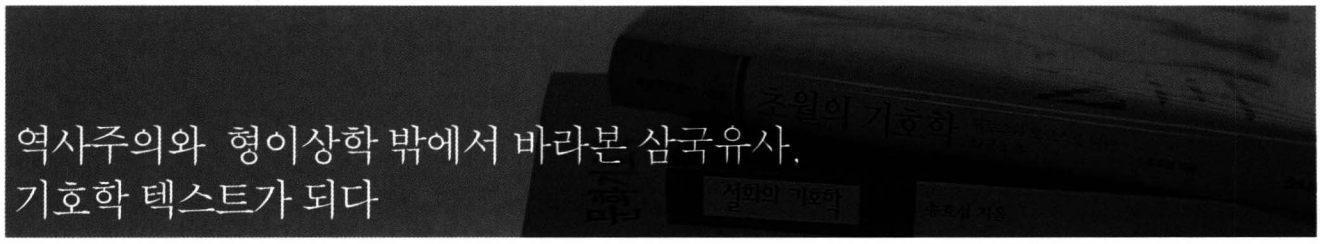

역사주의와 형이상학 밖에서 바라본 삼국유사, 기호학 텍스트가 되다

송효섭 지음 | 소나무 | 356쪽 | 값 18,000원

《초월의 기호학》 - 뮈토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 펴낸 송효섭교수

서강대 송효섭 교수(48)는 한국 기호학계에서 눈에 띄는 존재이다. 외국의 유명한 기호학자들의 이론에만 매달려온 우리 학계의 풍토에서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기호학자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출간한 《초월의 기호학》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삼국유사'라는 구체적인 텍스트에 초점을 맞춰, 설화와 기호학의 관계를 좀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부제는 '뮈토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 삼국유사를 뮈토스와 로고스라는 인문학의 보편적 개념을 사용하여 풀이해낸 것. 기호학이란, 넓은 의미로 기호의 기능과 본성, 의미 작용과 표현,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학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연구결과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십 년 전쯤 박사학위논문으로 삼국유사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연구가 바탕이 됐겠지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연구결과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하는 사유의 하나로 삼국유사를 택한 겁니다." 학문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굳은 지식은 그에겐 의미가 없다.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래야 한다는 게 인문학자로서의 그의 소신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기호학이라는 학문적 용어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오히려 전 기호학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는 말 속에서도 기호학적인 말들이 많아요. 쉽게 문화읽기, 영화읽기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과 같은 담론을 거쳐서 이해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호학적인 관점이죠. 어렵게 소쉬르나 에코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문학이 자신만의 영역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기호와 상징성에 과잉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우리의 삼국유사를 단순한 이야기책으로만 다루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책에서는 삼국유사라는 텍스트가 어떻게 기호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대해서 주로 역사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왔어요. 저는 그보단 탈역사주의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인 독법을 제시하고 싶었죠." 텍스트로부터 어떤 관념을 추론해 내기보다는 의미를 생성시키는 텃밭으로 간주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게 하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추상적인 범주화나 도식화를 해체하려는 욕망이 기호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기호학이 해체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뮈토스(신화)와 로고스(이성)라는 두 개의 틀을 설정했다. 뮈토스는 전승된 이야기를 말한다. 로고스는 뮈토스를 글로 기술할 때 생기는 논리이다. 이 책에서 뮈토스와 로고스는 삼국유사의 담론에서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삼국유사가 주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된다. 여기서 의미가 발생한다. 삼국유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지체 양상들이 오히려 삼국유사의 담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생성하는 텃밭이 될 수 있다.

"어떤 인문학적인 담론이든 간에 무엇이나 남김없이 기술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잉여적인 것이 남기 마련이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읽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체험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송 교수가 제시하는 삼국유사의 새로운 독법을 따라오다 보면 스스로 보다 구체적인 지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출판저널

강경희 기자